

♠ KOEMA 소식 ♠

'99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후원간담회 개최

'99. 6. 16(목) 무역회관에서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전기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이 모인 가운데 국내 유일의 전기전문 전시회인 '99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성공적 개최 및 발전방안 등을 협의키 위하여 후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공창덕 상근부회장은 동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적극적인 참가 및 홍보를 해줄 것과 전기업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배양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참가비 일부 및 대기업종합상사와 중소기업간의 수출상담회도 대수요처 차원에서 지원키로 하였으며, 조명조합에서도 금년부터 조

명전이 폐지되어 회원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하였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에너지절약 및 전기안전 사고 방지등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동전시회 홍보관 참가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고, 전력기술인 협회는 전국 5만여 회원이 관하여 전기기술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키로 하였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동전시회를 지휘총괄 및 감독하고 전기공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동전시기간중 동남아지역 전력회사 초청 구매상담회, 대기업 종합상사와 중소기업간 수출상담회, 세계각국의 전기바이어, 한국통신, 건설업체구매자 등을 대거 초청하여 수출촉진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아몰퍼스리본 할당관세 추천기관 지정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전기업체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정부에 할당관세 적용을 건의한 아몰퍼스리본(세번 :

7226.99.0000)이 '99. 7. 1부로 현행 8%에서 5%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게 되었다.

■ 동물품은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 철심의 방

향성 전기강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무부하손실(철손)을 기존 일반변압기의 1/3~1/4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변압기 제조가 가능하다.

- 할당관세 적용으로 아몰퍼스변압기를 제조하는 전기업체는 직접적으로 관세감면으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일반적인 주상변압기를 아몰퍼스리본을 사용한 변압기로 전량 대체할 경우 연간 약 645Gw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발전원가로 환산할 경우 200억원의 비용절감과 SO₂, CO₂, NO₂ 등의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 한편 SF₆ 가스등은 국내제조가 불가능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관련 제품에 필요한 물품등을 할당관세, 기본관세를 개편 등을 통하여 전기업체에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에서는 아몰퍼스리본 할당관세 수입 추천기관을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 지정하여 동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서 1통, 선하증권사본 1통,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 통상전시팀(담당: 강용진 대리, T. 3476-0271)으로 추천받아 수입하면 된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파견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99. 7. 5~7. 11 (7일간)까지 전력기자재업체 및 관련기관 24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일본시장 진출을 위하여 『대일본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을 동경, 나고야, 오사카 등 3개 지역에 파견한다.
- 최근 일본은 '95년 일본의 전기사업법을 개정, 경쟁원리를 통하여 2001년까지 전기요금 20% 인하발표('97) 등에 따라 각 전력회사들은 원가절감을 위하여 품질보다 가격을, 국내조달보다 해외조달 움직임에

따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적기에 동 촉진단 파견을 통하여 시장선점 및 동경, 중부, 관서전력회사와의 협력제휴 강화와 또한 일본의 전력회사 협력업체등과 수출상담회를 통한 아웃소싱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한편 일본 전력기자재(발전기자재) 연간 수요규모는 대략 3조6천억엔대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98년 일본기업의 중전기 생산실적은 3조8,727억엔 정도이고, 수입규모는 29억9천6백만불로 관련기자

재를 포함할 경우 수입규모는 이보다 크며, 실질적으로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은 '99년 385억불 규모의 설비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당부분 해외조달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참가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키 위하여 일본 전기바이어와 수출상담회시 소요되는 상담장임차비, 통역비, 바이어유치비용 등을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지원해 주며, 또한 현지 바이어유치 등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동 축진단이 많은 성과를 거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동 축진단 파견이후 일본진출을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한국전력공사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중전기기 일본 수출협의체 구성』 일본전력회사 입찰정보를 조기에 획득하여 업체제공, 전력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유도, 시장개척단 지속적 파견, 일본전기전시회에 한국홍보관 운영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일본의 전력기자재 시장을 노크할 예정이다.